

단계별 치매 보장과 대상포진, 통풍 등 통증 질환까지 한번에 '신한간병비받는건강보험'...합산장해율 50% 이상 납입면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도 75만명에 이르는 노인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치매 보장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대상포진, 통풍 등 다발성 통증 질환의 진단금을 최장 100세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신한간병비받는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 1천만원 기준으로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경도 치매 진단 시 200만원, 중등도 치매 진단 시 500만원을 보장한다.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2천만원을 보장하고 매월 30만원씩 5년 동안 간병비를 확정 지급한다. 단, 이미 지급된 치매 간병비는 차감 후 지급한다.

또 대표적 통증 질환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대상포진과 통풍에 대한 진단금을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진단금도 보장한다.

아울러 마취와 수술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 정의한 특정 마취 및 특정 수술 시 회당 30만원을 연간 3회 한도로 각각 보장한다.

상품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65세까지다. 합산 장해 지급률 50% 이상 또는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김상모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치매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치매 진단 시에도 피보험자의 생존과 관계없이 간병비를 5년간 지급해 고객 가정에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라며 "동시에 대상포진, 통풍 등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다발성 통증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①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생명

디지털 금융으로

따뜻한 보험을

그려갑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금융 모두가 누리는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
AAA 11년 연속 획득(NICE신용평가)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우수공헌터 9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6년 연속 수상(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